

**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4. 담화 (문제)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담화의 응집성은 여러 가지 형식적 장치를 통해 각 문장이나 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말한다.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의미적 등가(等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제 문구점에서 볼펜을 샀는데, 그거 불량품이었나 봐.”에서 ‘볼펜’과 ‘그거’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앞에 나온 말을 뒤에서 의미적으로 등가인 말로 대체함으로써 응집성을 높이는 현상을 ‘재수용’이라고 한다.

“옛날에 어느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웃 나라 왕자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는 재수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예로, 앞 문장에 나온 ‘공주님’을 뒤 문장에서 ‘그녀’로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재수용하는 말인 ‘그녀’를 ‘수용어’라고, 재수용되는 말인 ‘공주님’을 ‘피수용어’라고 부른다. 피수용어에는 ‘어느’, ‘어떤’, ‘한’ 등이 붙는 경우가 많고, 수용어에는 지시 관형사 ‘이’, ‘그’ 등이 붙거나 대명사 ‘이것, 그것, 그, 그녀’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앞의 예에서 수용어로는 ‘그녀’뿐 아니라, 지시 관형사를 사용한 ‘그 공주님’이나 ‘이 공주님’도 가능하고 또는 지시 관형사 없이 ‘공주님’도 가능하다. 단, ‘저 공주님’은 가능하지 않다.

[A]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도 유의 관계, 상하 관계, 한 단어의 지시 대상이 다른 단어의 지시 대상의 일부분인 관계인 부분-전체 관계 등 의미 관계에 기대어 재수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수용에서는 상위어가 하위어의 뒤에 오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길모퉁이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는 여자가 앉아 있는 듯했다.”는 첫 문장의 ‘트럭’이 다음 문장에서 그 상위어인 ‘차’로 재수용된 예인데, 반대로 “길모퉁이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트럭에는 여자가 앉아 있는 듯했다.”는 매우 어색하다.

담화에서 피수용어는 표면에 보이지만 수용어가 표면에 보이지 않으면, 수용어가 생략된 것이다. 생략은 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응집성 형성의 수단이다. “우리 누나는 내년엔 미국에 갈 것이다. (그녀는) 거기서 올림픽에 출전할 것이다.”와 같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23004-0063]

0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에서 ‘소년’은 피수용어에, ‘소녀’는 수용어에 해당한다.
- ②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에서 수용어로는 ‘그 소년’도 사용이 가능하다.
- ③ “어제 휴대 전화를 떨어뜨렸는데, 이거 고장이 났나 봐.”에서 ‘이거’는 ‘휴대 전화’를 대체하고 있다.
- ④ “우리 할머니는 강릉에 계셔. 거기에서 평생을 사셨어.”에서 ‘거기’를 ‘강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우리 할머니는 강릉에 계셔. 거기에서 평생을 사셨어.”에는 생략된 수용어가 있다.

[23004-0064]

0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땀별에 오래 서 있었더니 피부가 다 타 버렸다. 별장계 부은 살갓이 따끔거렸다.
- ㉡ 나는 친구를 잘 사귀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벗을 사귀고 나면 끈끈한 우정을 나눈다.
- ㉢ 잘 준비를 마친 아이의 얼굴이 발그스름한 것이 이상해서 손을 대 보니 볼이 뜨거웠다.
- ㉣ 비 맞은 강아지가 내 앞에 앉았다. 동물도 이런 눈빛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다.
- ㉤ 그는 초조하면 손톱을 물어뜯는다.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니 또 시작된 모양이다.

- ① ㉠: ‘피부’와 ‘살갓’이 의미가 서로 비슷하므로, 유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② ㉡: ‘친구’와 ‘벗’이 의미가 서로 비슷하므로, 유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③ ㉢: ‘볼’이 ‘얼굴’의 일부분이므로, 부분-전체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④ ㉣: ‘동물’이 ‘강아지’의 상위어이므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⑤ ㉤: ‘손톱’이 ‘손’의 하위어이므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23004-0065]

03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지시 표현은 화자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화자가 ‘이, 그, 저’ 등을 사용하는 것은 청자가 그 대상을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전제에는 ㉠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 ㉡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는 없지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그 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 ① ㉠: (진열장의 상품을 가리키면서 점원에게) 저거 좀 꺼내 주실래요?
 ② ㉠: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친구에게) 지금 이 연주 정말 듣기 좋은데.
 ③ ㉠: (출근하려던 아버지가 거실에 있는 딸에게) 너 옆에 있는 그 가방 좀 줘라.
 ④ ㉡: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있는 동생에게) 그거 오래된 건데 유통 기한 확인해 봐.
 ⑤ ㉡: (약속 장소를 정하기 위해 통화를 하면서 동료에게) 그럼 어디서 만날까? 지난번 거기 어때?

[23004-0066]

0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수학 연구 동아리 임원인 ‘현수’, ‘영훈’, ‘용찬’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수: ㉠ 우리 동아리도 신입생 환영회를 해야 하는데, 모레 하는 게 어떨까?

영훈: 이번 주 금요일? 난 좀 곤란해. ㉡ 우리 반 친구들이랑 박물관 견학 가기로 했거든.

용찬: 영훈이네 반은 박물관 가는구나. 그럼 아무래도 영훈이는 학급 회장이라 바쁘니까, 동아리 모임은 ㉢ 우리 둘이 준비할까? 동아리 부원들도 다 신입생 환영회를 얼른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영훈: 아냐, ㉣ 우리 같이 하자. ㉤ 너희끼리 준비하기엔 너무 많잖아.

현수: 좋아. (시계를 보며) 나는 5교시가 미술 시간이라, 준비물 챙기려면 이제 들어가야겠다.

영훈: 나도 도서관 들러야 해. 용찬아, ㉥ 우리 먼저 가 볼게. 이따 다시 이야기하자.

용찬: 그래. 그럼 수업 끝나고 ㉦ 너희가 ㉧ 우리 반으로 와.

- ①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③ ㉢이 가리키는 대상 모두는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④ ㉣과 ㉤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23004-0067]

0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주원’의 이모인 ‘보람’이 주원의 집을 방문하였다.

주원: (현관문을 열어 주면서) 이모, 안녕하세요?

보람: 우아, 우리 조카 못 본 사이에 많이 컸네. ㉠ 외할머니 어디 계셔?

외할머니: (거실로 들어서는 이모를 향해) ㉡ 우리 딸 왔구나. 무슨 일로 왔어?

보람: ㉢ 엄마 보고 싶어서 왔죠. ㉣ 언니랑 의논할 것도 좀 있고요.

외할머니: 그렇구나. ㉤ 주원아, ㉥ 엄마 좀 불러 줄래?

주원: (안방으로 가서) ㉦ 엄마, ㉧ 이모께서 오셨어요.

엄마: (주원에게) ㉨ 엄마 금방 나갈게. (거실로 나가서 ‘보람’을 향해) ㉩ 보람아, 오랜만이야.

- ① ㉠과 ㉣은 화자가 지칭 대상인 인물과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물을 지칭한 것이다.
- ② ㉡과 ㉤은 화자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 ③ ㉢과 ㉦, ㉥과 ㉨은 각각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 것이다.
- ④ ㉤과 ㉧은 화자가 자신보다 아랫사람을 호칭하면서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쓴 것이다.
- ⑤ ㉤과 ㉦은 화자가 다르지만 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과 호칭하는 말이 동일하게 쓰인 것이다.

[23004-0068]

06 <보기>의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직접 발화란 해당 문장의 종결 표현이 그것이 수행하는 목적, 즉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방을 청소할 것을 지시할 때 “방 좀 치워라.”라고 발화하면서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를 사용하는 것은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간접 발화란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 ① (우산 없이 외출하려는 딸에게 우산을 챙기라고 권유하며) 밖에 비 오네.
- ②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에게 정숙 표시판을 가리키며) 저거 안 보이세요?
- ③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사다 줄 것을 남편에게 부탁하며) 지금 슈퍼 문 열렸겠지?
- ④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방에 있는 아이들을 부르며) 애들아, 이제 나와서 밥 먹어라.
- ⑤ (버스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에게 옆으로 비킬 것을 요구하며) 저 여기서 내립니다.

[22004-0063]

01

〈보기〉를 바탕으로 발화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발화: “날씨가 덥네.”

- 의미 1: (어제 일기 예보에서 날씨가 선선할 것이라는 예보를 화자와 청자가 모두 본 상황) 일기 예보가 틀렸네.
- 의미 2: (날씨가 더우면 함께 음료수를 사 마시기로 약속한 상황) 음료수를 사 마시자.
- 의미 3: (화자가 에어컨 옆의 청자에게 말하는 상황) 에어컨을 켜라.

⋮

- ① 담화 맥락에 따라 발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구나.
- ② 발화와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 ③ ‘의미 1’의 경우 만약 화자가 혼자 일기 예보를 본 상황이라면 발화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 ④ ‘의미 2’의 경우 만약 화자와 청자가 미리 약속한 상황이 아니라도 발화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겠구나.
- ⑤ ‘의미 3’의 경우 만약 화자와 청자가 있는 공간에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가 있다면 의미가 달라지겠구나.

[22004-0064]

02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발화에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가 있다. ㉠ 직접 발화는 문장의 유형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이고, ㉡ 간접 발화는 문장의 유형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발화이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창문을 닫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자 할 때, “창문 좀 닫아 줘.”라고 발화한 것은 직접 발화를 한 것이고, “오늘 정말 춥지 않니?”라고 발화한 것은 간접 발화를 한 것이다.

- ① ㉠: (엄마에게 아침밥을 준비해 줄 것을 재촉하며) 엄마, 저 빨리 밥 주세요.
- ② ㉠: (친구에게 내일 국어 수업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며) 내일 국어 수업이 몇 교시이지?
- ③ ㉡: (아이에게 방을 청소할 것을 요구하며) 방 좀 깨끗하게 치워라.
- ④ ㉡: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는 자녀에게 잠에 들 것을 권유하며)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니?
- ⑤ ㉡: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볼 것을 학생에게 권유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22004-0065]

0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그’ 계열의 지시 표현은 앞서 말한 내용에서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쓰인다. 또한 ㉠ ‘그’ 계열의 지시 표현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해당 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 ① A: 지우개가 어디 있지?
B: 이 책상 위에 있는 게 그거 아니야?
- ② A: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날까?
B: 지난번에 만났던 거기서 만나자.
- ③ A: 오늘 점심 뭐 먹지?
B: 어제 먹었던 그거 먹고 싶다.
- ④ A: 너 어제 쓰고 있던 그거 마무리했어?
B: 응. 보고서 쓰느라고 잠 한숨 못 잤어.
- ⑤ A: 너 발표회 때 어떤 의상 입을 거야?
B: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거 입을 거야.

[22004-0066]

0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대기에 떠다니는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모인 것을 ㉠ 구름이라고 합니다. 즉, 구름을 이루는 성분 대부분이 물이라는 뜻이죠. ㉡ 그런데 오히려 물만 있다면 구름이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해서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되어야 하는데, ㉢ 이때 수증기를 뭉치게 하는 일종의 씨앗이 필요하거든요. 이 씨앗을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화산 분출물, 공장 매연 등이 응결핵의 역할을 해요. 이 응결핵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물방울로 커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 구름 생성을 돕기도 해요. 식물 플랑크톤이 만드는 ‘디메틸설파이드’는 황이 들어 있는 유기 물질인데, ㉣ 이것이 휘발되면서 구름 응결핵이 되거든요. ㉤ 이를 응용해 과학자들은 드라이아이스나 아이오딘화 은 같은 물질을 구름 위로 뿌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 강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이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인다.
- ② ㉡은 앞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뒤 내용을 이끌어 나감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담화의 응집성을 높인다.
- ③ ㉢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해서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될 때’를 가리키며 경제적 표현을 통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인다.
- ④ ㉣은 ‘식물 플랑크톤’을 가리키며 동일한 표현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것을 줄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인다.
- ⑤ ㉤은 ‘디메틸설파이드가 휘발되면서 구름 응결핵이 되는 것’을 가리키며 앞에 나온 내용을 대응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인다.

[22004-0067]

0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채운의 외삼촌 가족이 채운의 집을 방문한 상황. 채운의 할머니와 엄마, 채운이 이들을 맞이함.)

할머니: 아유. 오랜만이네. ㉠ 우리 손녀 많이 컸구나.외숙모: ㉡ 어머님, 건강하시죠? ㉢ 형님도 안녕하세요?엄마: ㉣ 올케, 아기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어서 들어와서 앉아. 아유. ㉣ 우리 조카 이제 잘 걷는구나. 고모 알아보겠니?외숙모: 네. 처음 키워 보는 아이라 쉽지 않네요. 이제 걷긴 걷는데 아직 ㉣ 고모를 못 알아봐요.채운: ㉤ 외숙모, 안녕하세요? ㉥ 외삼촌은 어디에 계세요?외숙모: 아, ㉤ 외삼촌은 지금 주차하고 있어. 곧 올라올 거야. 채운이도 그동안 잘 지냈니?

채운: 네, 잘 지냈어요.

엄마: 채운아, 방금 깎아 놓은 과일 ㉦ 할머니랑 외숙모께 갖다 드리렴.

채운: 네, 엄마.

- ① ㉠과 ㉣은 동일한 인물을 화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 ② ㉡과 ㉢, ㉢과 ㉤은 각각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③ ㉡과 ㉤은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 ④ ㉢과 ㉤은 화자가 자신과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칭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⑤ ㉥은 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칭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22004-0068]

06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직시’는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가 발화 장면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직시 표현이 담긴 발화의 정확한 지시 대상은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져야 확정된다. 예를 들어, ‘나는 내일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발화는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① 지구는 매일 자전을 합니다.
- ② 네가 이쪽으로 오면 내가 덜 힘들 것 같아.
- ③ 지금부터 세 시간 동안 회의할 예정입니다.
- ④ 여기서 미국에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 ⑤ 나는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상에서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및 그 말한 내용을 발화(發話)라고 하고, 발화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담화(談話)라고 한다.

발화들이 모여서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용 면에서 통일성, 형식 면에서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담화의 통일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하위 요소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내용상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담화의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형식적인 요소들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담화의 응집성은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생략, 반복 등을 통해 실현된다. 지시 표현은 담화 내의 화자, 청자, 시간, 장소, 사물 등의 요소를 가리키는 표현을 말하는데, 이를 이해하려면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시간적·공간적 장면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대용 표현은 이미 언급했거나 앞으로 언급할 말이나 내용 대신 사용되는 표현으로, 언어 형식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다. 접속 표현은 접속 부사나 시간적 혹은 논리적 순서를 나타내는 말 등을 활용하여, 발화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생략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는 요소는 드러내지 않는 문법 현상을 말하고, 반복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식이나 의미를 가진 표현이 두 번 이상 사용되는 것이다. 생략은 주로 정보의 경제성을 위해서 일어나고, 반복은 주로 정보의 강조를 위해 일어난다.

(나) 학생 1: (선반을 두 손에 들고) 이 선반은 ㉠여기쯤 놓으면 될까?

학생 2: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니, ㉡거기보다 한 10센티미터 정도 더 오른쪽으로……. (학생 1이 조금 이동하자) 그래, ㉢거기가 좋겠어!

학생 1: ㉣여기? (대답을 듣고 설치한 후) 구멍에 틀을 꽂아 돌리고 선반을 얹으니까 금세 설치가 되네. 그런데 선반이 놓이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데?

학생 2: ㉤여기를 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다양하게 쓰려면 선반을 어긋나게 배치해서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꾸며 봤어.

학생 3: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선반 여기저기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랑, 우리가 만든 학습 결과물을 놓으면 우리가 지은 ‘꿈담 카페’라는 이름과 잘 어울릴 거야. (자신이 설치한 선반을 가리키며) 어때? ㉦나는 여기에 이렇게 놓았어.

학생 1: (설치된 선반들을 바라보며) 그렇구나. 여기저기 배치하니가 진짜 카페에 온 것 같아. 아! ㉧이건 어떨까? 높은 데 있는 선반들에는 잎이 늘어지는 작은 화분을 두는 거야.

학생 2: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잘 가꿀 수 있을까?

학생 3: 화분을 키울 친구를 모집하면 우리 반에 있는 몇 명이 자기가 키우겠다고 나설 거야.

학생 1: 그러면 카페 홍보 포스터에 그 내용도 넣도록 하자.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학생 1: (복도 쪽을 돌아보며) 그런데 복도가 너무 조용한데……. (친구들을 보며) ㉩누가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학생 3: (시계를 보고) 어머니! 우리 빨리 수업에 가야겠다.

[A]

[21004-0054]

01 (가)의 ㉔를 참고하여 (나)의 ㉑~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표현인 ㉑, ㉒, ㉓ 중에 ㉒이 가리키는 공간의 범위가 가장 넓다.
- ② ㉑은 ㉑과 같은 지점을, ㉓은 ㉒과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으로, 가리키는 지점과 발화자와의 거리에 따라 다른 표현이 쓰이고 있다.
- ③ ㉔은 바로 앞의 ‘학생 2’의 발화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대응 표현이다.
- ④ ㉕은 화자와 청자가 대화 중에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지시 표현으로 나타내어 담화의 응집성을 실현하고 있다.
- ⑤ ㉑과 ㉕은 모두 대응 표현으로, 뒤따라 나오는 발화에서 언급되는 것을 미리 가리키는 말이다.

[21004-0055]

0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표현 중 [A]의 ㉔와 유사한 발화 행위가 나타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직접 발화란 문장의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를 말한다. 우리말에서는 종결 어미가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떤 일을 요구할 때 명령문을 이용하거나 ‘약속하다’, ‘제안하다’ 등의 서술어를 사용하는 것은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간접 발화란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발화를 말한다. ㉔에서 현재 시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계의 소유와 관련된 평서문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상황에 따라 의문문이나 평서문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 그 예이다.

- ①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 작을 때)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 ②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마주친 친구에게) 이 짐을 저쪽까지 옮겨야 되는데 너무 무겁네.
- ③ (늦은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자 시간을 확인한 후) 지금이 몇 시인지 아니?
- ④ (열어 놓은 창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 와서 책장이 날릴 때 창가에 앉은 친구에게) 바람이 엄청 강하구나.
- ⑤ (3학년이 수업을 하는데 다른 학년 학생들이 대화를 하며 복도를 지나갈 때) 지금 교실에서는 수업을 하는 중입니다.

[21004-0056]

03 다음은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쓴 안내문이다. (가)를 토대로 통일성과 응집성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회에서 선생님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3층 빈 공간에 학생들의 학습터인 ‘꿈담 카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작은 탁자와 의자를 여러 개 배치하여 학생 여러분이 소규모로 모여 학습 두레를 하거나 답소를 나눌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벽면의 곳곳에 설치한 선반에는 여러분이 읽고 싶어 하는 책들을 꽂아 두고, 학습 자료들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학생은 누구든지 여기 와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반은 모두 원목으로 만든 것입니다. 몇몇 선반에는 우리들의 수업 활동 결과물 중에서 공유할 만한 자료들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높은 선반에는 덩굴 식물을 두어 꿈담 카페의 운치를 더하며 공간을 더욱 생기 있게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해 줄 ‘정원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식물을 가꾸고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지금 즉시 ‘정원사’ 모집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우리들의 ‘꿈담 카페’를 학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카페를 사용하며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학생회에 의견을 주십시오.

- ① ㉡는 바로 앞의 문장에서 언급한 ‘여러분이 읽고 싶어 하는 책들’과 ‘학습 자료들’을 가리키는 표현을 생략하여 담화의 응집성을 실현하고 있군.
- ② ㉢는 글 전체의 흐름으로 미루어,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겠군.
- ③ ㉣는 문장과 문장 간의 응집성을 실현하기 위해 접속 표현을 사용한 것이군.
- ④ ㉤에서 앞에서 언급한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한 것은 내용상 해당 정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글의 맥락으로 미루어, ㉥는 ㉠와 ㉦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군.



[21004-0059]

01 <보기>의 담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미용사: 손님,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 드릴까요?

손님: (스마트폰으로 곱슬곱슬한 단발머리의 인물 사진을 보여 주며) ㉠이렇게 하고 싶어요.

미용사: (사진을 확대하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그럼 먼저 머리를 ㉢이 정도 길이로 자르고, ㉣그런 다음에 파마를 할게요.

손님: (고민하는 표정으로 사진을 보면서) ㉤저, ㉥그런데 ㉦이런 머리 모양이 ㉧저한테 어울릴까요?

미용사: ㉨그럼요. 아주 산뜻해 보일 것 같은데요?

- ① ㉠과 ㉢은 화자가 가리키는 대상을 청자가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은 손님이 한 앞의 발화를 받아들이면서 한 말이고, ㉣은 앞의 발화에 대답하기 위해 쓴 말이다.
- ③ ㉣은 사진을 확대한 화자의 행동을, ㉦은 화자가 보고 있는 사진 속 곱슬곱슬한 단발머리를 가리킨다.
- ④ ㉤은 화자의 머뭇거림을 드러낸 말이고, ㉧은 화자가 청자를 상대로 자기를 낮추어 가리킨 말이다.
- ⑤ ㉥은 화제를 앞의 발화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21004-0060]

02 <보기>의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청첩장

<p>국수 먹는 날</p> <p>소중한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꼭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p> <p>장〇〇과 최〇〇의 아들 동건 김〇〇와 윤〇〇의 딸 현지 20××년 ×월 ××일 토요일 오후 1시 행복회관 무궁화홀</p>	<p>행복회관 2번 출구 ○ 버스 정류장 △△역</p> <p>〈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호선 △△역 2번 출구(도보 5분) 버스 ▽▽▽▽번 ▽▽정류장 하차</p>
--	--

(나) 대화

현지: (청첩장을 건네며) 마이크, 안녕? 기쁜 소식이 있는데, 너를 초대하고 싶어.

마이크: 우아! (청첩장을 보면서) 국수 먹는 날? 그럼 누들 파티(Noodle Party)에 날 초대하는 거야?

현지: (웃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결혼식에 너를 초대하는 거야.

마이크: 뭐? (청첩장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국수를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결혼식이라니?

현지: 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올리는 일을 '국수를 먹다'나 '국수를 먹이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는 해. 결혼식 피로연에서 흔히 국수를 대접하는 전통이 있거든.

- ① (가)는 담화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군.
- ② (나)의 '국수를 먹(이)다'라는 비유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것이겠군.
- ③ (가)는 결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결혼식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군.
- ④ (나)에서 마이크가 현지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결혼식 문화와 관련한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겠군.
- ⑤ (가)와 (나)에서 모두 담화 생산자와 담화 수용자의 상호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21004-0061]

03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담화를 이루는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장치에는 대용 표현 등이 있습니다. 대용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기차로 서울역까지 갔다. 거기서 경복궁까지는 버스로 갔다.”에서 ‘거기’는 앞에 나오는 ‘서울역’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는 서로 다른 품사나 문장 성분 사이에서도 일어나므로, ㉠대용 표현과 대용 표현이 대신한 말이 서로 다른 문장 성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가 활용되기도 하는데, ㉡앞에 나온 말의 상위어로 앞에 나온 말을 대신한 경우를 들 수 있지요. 단,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용 표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생략된 경우도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생략을 통해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예컨대 주어의 생략도 빈번합니다.

[학습 활동]

다음 [자료]의 ㉠~㉣가 ㉠~㉣ 중 무엇에 대응하는지 연결해 보자.

[자료]

- ㉠ 나는 부산을 좋아해. 우리 할머니가 거기에 사시거든.
- ㉡ 홍길동은 내년엔 서울로 갈 것이다. 거기서 학교에 다닐 것이다.
- ㉢ 길모퉁이에 트럭이 서 있었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타고 있었다.

- | | 가 | 나 | 다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b | c | a |
| ⑤ | c | b | a |



20003-0200

01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담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담화는 화자, 청자, 발화(전달 내용),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화를 해석할 때에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잘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맥락에 따라 발화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화	분석
①	(도서관에서) A: 여기 자리 있어요? B: 네, 있어요.	A의 질문에 대한 B의 답은 '자리가 비어 있다.'와 '다른 사람이 해당 자리를 사용 중이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②	(접촉 사고 현장에서) A: 그런데 당신 몇 살이야? B: 그러는 당신은 몇 살이야?	'당신'은 상대방을 높일 때에도 사용되지만, 서로 싸울 때에는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특징이 있어.
③	(소아과 진료실에서) A: 우리 어린이는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B: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쓰인 '우리'는 1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청자에 대한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야.
④	(음악 시간에 친구 두 명이) A: 너 피아노 칠 수 있어? B: 응. 그런데 너무 덩다. 너 거기 창문 좀 열어 줄 수 있어?	'-ㄴ 수 있어?'라는 표현은 원래 가능성을 물어보는 표현인데, B의 발화에서는 가능성을 물어보는 의문문이 아닌 '창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한 표현이야.
⑤	(복잡한 버스의 문 앞에서 승객 두 명이) A: 내립니다. B: 저도 내릴 거예요.	A가 버스에서 함께 내리자는 의미로 청유문을 사용하자, B도 함께 내리겠다는 의미를 공손하게 전달하고 있어.



20003-0201

02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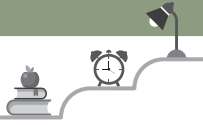
보기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 주는 표현이다. 그런데 때로는 접속 표현이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접속 표현의 앞에 위치하는 문장에 대한 화자의 숨겨진 인식을 접속 표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문장을 보자.

- ㉠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그래서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있다.
- ㉡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그러나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있다.
- ㉢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그래서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없다.
- ㉣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그러나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없다.

(가)

- ① ㉠에는 규모가 작아도 ‘호텔의 요리사는 솜씨가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 ② ㉡에는 ‘작은 호텔이라서 요리사의 솜씨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 ③ ㉠과 ㉢의 접속 표현을 ‘따라서’로 바꾸어도 함축 내용은 각각 ‘그래서’를 사용할 때와 동일하다.
- ④ ㉡과 ㉣에서의 함축 내용은 동일하다.
- ⑤ ㉡과 ㉣에는 수현이가 만든 요리의 맛이 뜻밖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20003-0202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 지시 표현은 국어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사람을 부르는 말인 ㉠호칭어와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가리키는 말인 ㉡지칭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지시 대명사들이 어우러져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명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국어의 지시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 그, 저’와 이를 포함하는 다양한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의 예로 ‘이이, 저이, 그이’가 있으며, 이들은 ㉡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② ㉡의 예로 ‘여기(요), 저기(요), 거기(요)’가 있으며, 이들은 ㉠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③ ㉡의 예로 ‘이쪽, 저쪽, 그쪽’이 있으며, 이들은 ㉣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④ ㉣의 예로 ‘이것, 저것, 그것’이 있으며, 이들은 ㉡으로도 사용된다.
- ⑤ ㉣의 예로 ‘이쪽저쪽’, ‘여기저기’가 있으며, 이들은 ㉠으로도 사용된다.

20003-0203

04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서진: 선생님, 대용 표현은 항상 앞에서 언급한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인가요?
선생님: 그렇지 않단다. 대용 표현에는 하나의 담화 안에서 앞에 나온 말을 다시 가리키는 것도 있고, ㉠뒤에 나올 말을 미리 가리키는 것도 있어.

〔보기 2〕

재경: 너 ㉠그 소식 들었어? 동아리 애들이 아침부터 이야기하던데.
은수: ㉡그게 뭘지는 모르겠지만, 점심부터 먹자.
현진: 그래, ㉢이런 말도 있잖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재경: 우리 동아리에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방송 출연 섭외가 들어왔는데도?
은수: 뭐? ㉤그게 정말이야?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0003-0204

05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학습 목표] 맥락을 통한 높임 표현 사용 분석

[학습 활동]

1. 예문

- ㉠ (교장이 교사에게) 선생님, 따님은 잘 지내시지요?
- ㉡ (친구끼리 대화를 하며)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줘.
- ㉢ (할머니가 길에서 처음 만난 학생에게) 학생, 이곳은 어떻게 가지요?
- ㉣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산에 갈 거예요.
- ㉤ (김 선생님이 한 살 많은 박 선생님에게) 선배, 이제 저녁 먹을까?

2. 예문의 분석

(가)

[활동 결과]

나이, 친밀도, 상황 등 다양한 맥락이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① ㉠의 화자가 사용한 높임 표현을 결정하는 요소는 선생님의 딸과 화자의 나이 관계이다.
- ② ㉡이 공식적인 상황에서 발화되면 친구 사이라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바뀌지 않더라도 높임 표현이 달리 사용될 수 있다.
- ③ ㉢의 화자는 청자의 나이를 따지기보다는 친밀도를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의 화자는 청자의 나이와 친밀도보다 수업 시간이라는 발화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의 화자는 청자와의 친밀도를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9003-0200

01 밑줄 친 단어의 의미 관계가 <보기>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담화의 의미는 맥락을 참고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맥락에 따라 같은 단어가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들이 있다.

- ① [㉠ 취직자리가 나서 얼른 지원했다.
㉡ 이 지방에서는 사과가 많이 난다.
- ② [㉠ 형님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했다.
㉡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장손에게 상속했다.
- ③ [㉠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출해 왔다.
㉡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책을 대출하는 기관이다.
- ④ [㉠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 우리는 앞 세대의 누적된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 ⑤ [㉠ 그는 빛 독촉에 못 이겨 집을 빛쟁이에게 넘기고 말았다.
㉡ 큰아버지는 소를 사육하다가 하루아침에 빛쟁이가 되고 말았다.

9003-0201

02 <보기>의 발표에서 ㉠에 들어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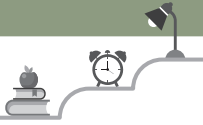
보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은 특정한 장치에 의해 연결되어 응집성이 있는 하나의 담화를 만들어 냅니다. 그중 담화의 앞뒤에서 언급한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을 ‘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대용 표현에는 ‘이러하다, 그러하다’, ‘이것, 그것’ 등 지시 표현과 유사한 ‘이, 그, 저’를 포함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국어에서는 이러한 대용 표현과 함께 담화의 응집성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옛날에 한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웃 나라 왕자님을 사랑했습니다.
- (2) 할아버지는 단정하신 분이셨다. 항상 당신의 옷을 고이 개어 두셨다.
- (3) 길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는 강아지가 있었다.
- (4)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는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않는다.
- (5) 지수는 동생을 자전거에 태웠다. 동생은 누나가 자전거를 잘 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척이나 신이 났다.

그럼, 예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 ① (1)에서의 ‘그녀’는 앞 문장의 ‘공주님’의 대용 표현입니다.
- ② (2)의 ‘분’은 뒤 문장에서 언급한 ‘당신’ 대신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 ③ (3)은 상하 관계의 어휘가 연결된 예로, 상위어가 뒤에 위치하였습니다.
- ④ (4)에서는 앞에 나온 보통 명사를 뒤에서 다시 보통 명사로 반복하여 응집성을 형성합니다.
- ⑤ (5)에서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동생’이 만들어 내는 응집성을 통해 ‘지수’가 ‘누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9003-0202

03 <보기>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A: ㉠저, 그쪽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B: 네,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계시던 분은 어디 가셨죠?
A: 아, 잠시 전화하신다고 나가셨어요. ㉢절때 보니 항상 같은 시간에 어머니께 전화 드리더라고요요.
B: 효자시네요. 참, ㉣그쪽에서 저번에 많이 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A: 그래요? 다행이네요. 워낙 ㉤이쪽 사람들이 적극적이더라고요.

- ① ㉠은 인칭이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 ② ㉡은 인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③ ㉢은 과거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한 집단을 가리킨다.
- ⑤ ㉤은 화자와 화자를 포함한 집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9003-0203

04 <보기 1>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 2>의 대화를 분석할 때, <보기 2>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과 ㉡이 일치하는 담화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담화는 화자와 청자에 의해 구성된다. 화자는 발화의 주체가 되어 담화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할 때에는 청자가 그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말을 해야 한다.

민주: 우리 내일 거기서 만나자.

규리: 거기? 그래!

지호: 응? 거기가 어딘데?

이 담화에서 민주는 규리와 지호가 ‘거기’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거기’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청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청자가 대상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가정을 통해 담화를 구성한 것이다. 이때 규리는 실제로 ‘거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의 말을 바로 이해했다. 화자의 가정과 ㉡청자의 사전 지식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호는 민주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는 민주의 가정과 지호의 사전 지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기 2┐

㉠ 규리: 우리 반 은기 있잖아.

지호: 은기가 누구야?

㉡ 민주: 내 친구 중에 현우라는 애가 있어.

정수: 현우? 나도 알아.

㉢ 주영: 우리 2학년 때 한국사 선생님이 TV에 나오신대.

경호: 정말? 무슨 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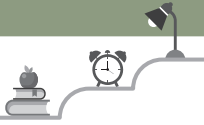
① ㉠

② ㉡

③ ㉢

④ ㉠, ㉡

⑤ ㉡, ㉢



9003-0204

05 <보기>의 답화 (1)과 (2)에서 함축이 생기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A: 어제 일은 현수가 너무하지 않았니?
B: (현수가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날씨 정말 좋다.

- ↳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의 화제와 관련성이 있는 답을 해야 하지만, B는 관련성이 없는 답을 하였다.
- ↳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친구들이 곤란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 즉, B는 실제로는 (㉠)을 한 것 같지만 (㉡)를 갑자기 바꾸어 (㉢)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한다.

(2) A: 우리 고양이가 말하는 거 같아.
B: 고양이가 말을 해? 말도 안 돼.
A: 아냐, 우리 고양이는 진짜로 말을 한다니까.
B: 그래? 그럼 우리 강아지는 랩도 하고 노래도 하겠다.

- ↳ 대화를 할 때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강아지가 랩과 노래를 한다.'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이다.
- ↳ 그러나 이는 '네가 한 말은 강아지가 랩과 노래를 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돼.'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 ↳ 즉, B의 마지막 말은 (㉣) 같지만, (㉤)라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① ㉠: 대화 화제와 관련성이 없는 답
- ② ㉡: 대화 화제
- ③ ㉢: '그 이야기는 그만해.'
- ④ ㉣: 진실을 말하는 것
- ⑤ ㉤: '네 말은 못 믿겠어.'

8003-0197

01 <보기>를 참고하여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분석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담화는?

(보기)

담화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이므로 담화의 의미는 맥락을 참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① 관객 1: (빈자리를 가리키며) 여기 자리 있나요?
관객 2: 앉으셔도 돼요.
- ② 딸: (등교하려다 다시 집으로 들어오며) 밖에 비 와요.
엄마: 신발장 열어 보면 우산 있어.
- ③ 손님: (상품을 구경만 하다가 가게를 나가면서) 다음에 올게요.
점원: 다음에 오시는 약속은 언제로 잡을까요?
- ④ 교사: (냉방기가 작동하는 교실에 들어오며) 너희는 춥지도 않니?
학생: 체육 끝나고 와서 더워요. 조금만 있다가 끝게요.
- ⑤ 관광객: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다가) 경복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행인: 이 길 따라 쪽 올라가시다가 왼쪽으로 꺾으면 입구가 보여요.

8003-0198

02 <보기>의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청첩장

<p style="text-align: center;">국수 먹는 날</p> <p style="text-align: center;">소중한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꼭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장○○과 최○○의 아들 동건 김○○와 윤○○의 딸 현지 20××년 ××월 ××일 토요일 오후 1시 행복회관 무궁화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right;">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복회관 <input type="checkbox"/> 2번 출구 <input type="radio"/> 버스 정류장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역</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호선 △△역 2번 출구(도보 5분) 버스 ▽▽▽번 ▽▽정류장 하차 </td> </tr> </tab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복회관 <input type="checkbox"/> 2번 출구 <input type="radio"/> 버스 정류장	△△역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호선 △△역 2번 출구(도보 5분) 버스 ▽▽▽번 ▽▽정류장 하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복회관 <input type="checkbox"/> 2번 출구 <input type="radio"/> 버스 정류장						
△△역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호선 △△역 2번 출구(도보 5분) 버스 ▽▽▽번 ▽▽정류장 하차							

(나) 대화

현지: (청첩장을 건네며) 마이크, 안녕? 기쁜 소식이 있는데, 너를 초대하고 싶어.
 마이크: 우아! (청첩장을 보면서) 국수 먹는 날? 그럼 누들 파티(Noodle Party)에 날 초대하는 거야?
 현지: (웃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결혼식에 너를 초대하는 거야.
 마이크: 뭐? (청첩장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국수를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결혼식이라니?
 현지: 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올리는 일을 ‘국수를 먹이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는 해. 결혼식 피로연에서 흔히 국수를 대접하는 전통이 있거든.

- ① (가)는 담화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군.
- ② (나)의 ‘국수를 먹이다’라는 비유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것이겠군.
- ③ (가)는 결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결혼식에 참석할 것을 호소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군.
- ④ (나)에서 마이크가 현지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결혼식 문화와 관련한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겠군.
- ⑤ (가)와 (나)에서 모두 담화 생산자와 담화 수용자의 상호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03 <보기>의 담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003-0199

(보기)

(승아와 윤미가 춤을 연습하고 있다.)

승아: 윤미야, ㉠ 거기서 나 좀 봐 줄래?

윤미: (승아의 춤을 보다가) ㉡ 이쪽에서 보니까 동작을 좀 더 크게 해야 할 것 같아.

승아: (동작을 취하며) ㉢ 이렇게?

윤미: ㉣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시범을 보이며) ㉤ 이렇게 팔을 위로 더 뻗어 봐.

승아: 알았어. ㉥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해 볼게. ㉦ 이 동작이 진짜 어렵다.

윤미: 나도 ㉧ 저번에 연습했을 때는 잘 안 됐었어. 오늘은 ㉨ 그 동작만 집중 연습하자.

- ① ㉠과 ㉡은 모두 ‘윤미’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고 있군.
- ② ㉢은 발화와 함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군.
- ③ ㉣은 청자의 동작을, ㉤은 화자 자신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군.
- ④ ㉥은 ㉧보다 시간상으로 앞서 일어난 때를 나타내고 있군.
- ⑤ ㉦이 가리키는 것은 ㉨이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이군.

04 <보기 1>의 ㉠~㉢에 대응하는 것을 <보기 2>의 ㉣~㉥와 바르게 연결한 것은?

8003-0200

(보기 1)

㉠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시간, 장소 등의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 맥락에서 언급된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적 현상을 대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김연아는 밴쿠버 올림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확신했다.”라는 문장에서 ‘그녀’는 이미 언급한 문장 속의 ‘김연아’를 가리킨다. 대응에는 ㉡ 앞에 나온 것을 다시 가리키는 것도 있고, ㉢ 뒤에 나올 것을 미리 가리키는 것도 있다.

(보기 2)

- 강릉에 가려면 ㉣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 그렇다.
- 소년은 바로 ㉥ 그를 기다려 왔다. 자신과 전 세계를 모험할 영웅을 말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가 | 나 | 다 | ② | 가 | 다 | 나 |
| ③ | 나 | 가 | 다 | ④ | 나 | 다 | 가 |
| ⑤ | 다 | 나 | 가 | | | | |



8003-0201

05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을 접속해 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함축된 의미도 표현한다. 또한 접속 표현은 담화 상황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 (같이 놀러 가자는 친구의 제안에 대한 대답)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숙제를 다 마치면 놀러 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지금은 놀러 갈 수가 없어.”
- (시험 결과가 발표된 후, 그에 대한 반응) “철수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 그런데 시험에 합격했네.”

- ① ㉠은 ‘나는 숙제를 다 마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은 ‘나는 숙제를 다 마쳤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② ㉠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놀러 가는’ 행동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③ ㉡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놀러 가는’ 행동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에 함축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그런데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에는 ‘철수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